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프로그램별 실행계획서

■ **행 사 명** : 이 시대 교육포럼 1 - 전환학년제(gap year), 쉽이 있는 배움에 대한 상상

■ **행사취지**

- 저성장 고실업, 위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은 입시에 성공하는 능력이 아닌, 스스로 사회를 탐구하며 자활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존재임. 이런 맥락에서 삶에 밀착된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는 고민 속에서 틈새학교, 쉼표학교 등 유럽의 갭이어(gap year)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적 움직임이 늘어가고 있음. 제각기 다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초기에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정립하긴 힘들지만 최소한 이러한 시도를 할 때 가져야 할 방향성과 토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기에 그런 논의와 상호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3:00-17:00
- 장소 : 하자센터 본관 103호(마을서당)
- 대상 : 전환학년제(gap year)에 관심 있는 (제도/대안)교육 교사/활동가, 교육 행정가/정책연구자 등 50명
- 내용 : 경쟁과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10대 중후반 전환기(중3, 고3)에 필요에 따라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취업하지 않고 1년간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를 탐구하면서 자립과 돌봄의 감각을 키우며 삶의 진로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전환학년제(gap year) 성격의 제도 또는 배움터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자리
1부에서는 덴마크 포크하이스쿨(Folk High School) 중 하나인 국제시민대학(International People's College)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2부에서는 포럼 참가자들이 함께 둘러 앉아 어떻게 전환학년제(gap year)의 본 취지를 살려 우리 현실에서 구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

■ **진행순서**

시간		진행내용
1부	13:00-13:05 (05분)	1부 여는 말 및 참석자 소개 / 사회: 박형주(하자센터 기획부장)
	13:05-13:25 (20분)	[발제] 삶의 전환점을 위한 천 개의 해방구 - 현병호(대안교육연대 대표, 격월간 민들레 발행인)
	13:25-14:25 (60분)	[발제] 삶을 위한 배움과 스스로 시작하는 전환 - 쇠렌 라운비에르(Søren Launbjerg, 덴마크 국제시민대학(IPC) 교장)
	14:25-15:00 (35분)	패널 및 참석자 질의응답
휴식	15:00-15:15 (15분)	중간 휴식
2부	15:15-15:20 (05분)	2부 여는 말 / 사회: 박형주(하자센터 기획부장)
	15:20-15:50 (30분)	[패널토의] 전환학년제, 그 의미를 살린 현실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 패널1. 정병오(문래중학교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패널2. 오일화(함께여는청소년학교 센터장,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15:50-16:50 (60분)	자유 토론 및 참석자 간 상호 질의응답
	16:50-17:00 (10분)	- 닫는 말

[발제1] 삶의 전환점을 위한 천 개의 해방구¹⁾

현병호

(대안교육연대 대표, 격월간 민들레 발행인)

나이의 통념에서 벗어나기

“1살에 걸음마가 늦으면 지는 걸까? 4살에 영어유치원 못 가면 지는 걸까? 8살에 반장이 못 되면 지는 걸까? 15살에 영어발음이 된장이면 지는 걸까? 26살에 대기업 못 가면 지는 걸까? 34살에 외제차 못 타면 지는 걸까?”

이 문구는 놀랍게도 공중파를 탄 광고 카피다. 광고의 요지는 다른 사람들 기준대로 살지 말고 자기 기준으로 살자는 건데, 실제로는 은근히(또는 노골적으로) 나이에 따른 비교 심리를 자극하고 경쟁심을 부추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기에 그랜저로 대답했다”에 버금가는 반사회적 광고라 할 만하다. 사실 저 광고에 담겨 있는 문제의 본질은 영어유치원, 반장, 대기업, 외제차라는 평가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걸까?’라는 경쟁 패러다임에 있다. 삶을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보도록 은근히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 광고의 공통된 기조다.

이윤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자본은 소비자들의 우월감과 뒤처지는 데 대한 두려움을 교묘하게 부추긴다. 나이는 우리 사회에서 큰 비교 기준으로 작용한다. 늦어도 8살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14살에는 중학교, 17살에는 고등학교, 20살에는 대학에 들어가야 제 코스를 밟는 걸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누구도 이 통념을 벗어나기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더 나아가 결혼은 몇 살쯤 해야 하고, 몇 살쯤엔 과장, 몇 살쯤엔 부장이 되어야 하는 인생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다들 노심초사한다.

하지만 이 틀도 빠르게 균열이 가고 있다. 미혼과 비혼이 늘고,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청년은 빠르게 당겨지고, 평균수명은 나날이 늘어나면서 인생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나이가 계급이 되는 농경 사회의 유산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재수생 삼수생이 기하급수로 늘면서 대입 연령 기준이 많이 희미해졌듯이, 중고등 과정에서 한 해 ‘끓는’ 것을 곧 무릎을 꿇는 것처럼 여기던 사회 분위기도 예전보다는 느슨해진 느낌이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을 열일곱에 다니든 열여덟에 다니든 무슨 대수일까. 나이의 통념에서 벗어나면 틀에 맞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삶의 전환점 만들기

자유학기제 또는 전환학년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²⁾ 정규 교육과

1) 이 글은 격월간 민들레 통권 76호에 실린 글을 보완한 것임

2)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국영수 시간을 줄이고 체험활동과 진로탐색 과정을 강화한 것으로 기존의 학습 중심 교육과정을 조금 느슨하게 만든 것이다. 기존 학제에 한 학년을 더하거나 기존 학제 안에서 한 학년을 별도로 운영하는 개념의 전환학년제는 30년의 역사가 있는

정에 쫓겨 자기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십대들에게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 한숨 돌리며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쉽’ 또는 ‘틈’은 앞만 보고 달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왜 달리는지, 이렇게 달려야만 하는 건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한편 달리기를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삶의 다양한 가능성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생에는 하나의 코스만 있는 게 아니며 또 그렇게 선착순 달리기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걷고 싶은 길을 여유롭게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처럼 경쟁이 심한 교육환경에서 십대나 이십대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저만치 앞서 달리는 친구들을 날마다 보면서 자신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 일찌감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삼사십대가 되어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면, 뭘 시작해도 늦지 않은 나이에 왜 그렇게 일찍 좌절했든가 후회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눈을 뜨기가 힘들다. 전환학년제는 무엇보다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육현실에 절실한 제도이다.

전환학년제를 위해서는 기존 학제 안에 별도로 특별학년을 두는 방안³⁾과 덴마크의 경우처럼 별도의 독립된 단기 학교를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특별학년제의 경우는 통학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전환점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 무엇보다 사교육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가정환경과 주변으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확실한 전환점을 위해서는 기숙형 단기 학교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학교라는 명칭을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일단 ‘틈새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단기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자.

틈새 넓히기

틈새학교는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중학생 연령대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거치는 자아 찾기 코스, 또 한 유형은 십대 후반 또는 이십대 초반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나가기 전에 거치는 길 찾기 코스로 대별할 수 있다. 이는 사실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 폴케회어스콜레와 비슷한 개념이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사회로 나가기보다 일 년 정도 다른 경험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장래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3년제, 6년제 정규 학교 형태를 띠고 있어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일은 상당한 마음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다녀 보니 학교와 맞지 않아서 중간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지 않더라도 도중에 혼란을 느끼고 좀 쉬어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일 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길을 찾는 과정의 틈새학교가 있다면 시행착오를 크게 염려하지 않고도 다른 길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틈새학교는 대안교육 출신 아이들보다 일반학교에서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한 것으로 자유학기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3) 4년제 공립 고등학교에 대한 정병오의 제안(2013년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10-15-20 특별학년제에 대한 조한혜정의 제안(한겨레 2012년 10월 16일자 칼럼) 참조.

아이들에게 더 절실할 수 있다. 졸업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허구헌날 책상에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교육인가. 꽃다운 나이에 꽃을 피우기는커녕 나날이 시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들은 또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서로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 우리는 왜 방치하고 있는가.

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곳곳에 작은 틈을 내어 해방구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런 틈새들이 늘어나면 시스템도 바뀌게 될 것이다. 틈새 넓히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닐까. 지난 15여 년 동안 3백여 개의 대안학교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십 년 안에 1천 개의 틈새학교를 만들어보자. 무거운 대안학교 말고 좀 가벼운 학교를 만들어보자. 학교 형식을 넘어선 배움터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보자.

십대 중반을 위한 해방구

한 학기 또는 일 년 단위로 운영되는 숲속학교, 자전거학교, 농사학교, 여행학교 같은 단기 과정의 특성화된 대안학교들이 곳곳에 생겨나면 일반 학생들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과정을 밟을 수도 있지만, 학기 중에 휴학을 하고 다닐 수도 있다. 이런 틈새학교가 위탁형 대안학교가 된다면 출석 인정이나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선택이 더 쉬울 것이다.(이 유형의 학교들을 범주화해서 굳이 지금의 제도에 따른 이름을 붙이자면, ‘단기 특성화 대안학교’라 부를 수 있겠다.)

현행 제도 안에서는 학력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당분간은 일 년을 ‘뚫게’ 되겠지만, 십대 시절에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이십대를 덜 헤매게 될 것이므로 따지고 보면 돌아가는 길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를 ‘뚫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아마도 ‘뚫는다’는 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이 왜 ‘뚫는’ 일이 되어야 하는가.

현재의 위탁형 대안학교를 이런 유형의 ‘단기 특성화학교’로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중도탈락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내몰리다시피 선택하는 길이어서, 일반 학생들이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단기 과정의 특성화 공립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누구보다 일반학교에서 죽어지내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형 혁신학교를 고1 과정의 단기 특성화학교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단기 위탁학교를 다니는 방안도 구상해볼 수 있다. 일반 학교에서 자유학기 과정의 전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코스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단기 코스의 다양한 학교들이 생겨나 자유학기 기간의 학생들이 취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1년 과정까지 기간도 다양하고 교육과정도 다양한 학교들이 생겨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쉽지 않다 해도 시범학교를 잘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몇 년 안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백 명 중 한 명만 이 과정을 선택해도 5천여 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십 년 안에 그 수가 5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틈새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바람직한 쪽으로 제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십대 후반, 이십대 초반을 위한 해방구

산업 자동화의 여파로 노동력이 남아돌면서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이 취업준비소로 전락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오늘날 많은 대학(대학원)들은 성인기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고 있다.

대안학교 졸업생들 중에는 대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취업준비소에 지나지 않는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대안교육 진영이 당면한 과제이다. 이 상황은 일반학교 출신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특히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 전까지 매우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모색해볼 수 있는 단기 과정의 자유시민대학 같은 것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덴마크의 풀케회어스콜레 같은 모델이다.

조한혜정 교수가 제안한 10-15-20 특별학년제처럼 20세에 1년 동안 공익활동을 하면서 그 세대가 당면하거나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청년들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런 과정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청년들의 경우 이미 개인적으로 이런 탐색기를 갖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개별적으로 탐색하기보다는 함께 탐색할 수 있는 단기 자유시민대학 같은 모델을 만든다면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대안학교에서 현장 별로 특성을 살려 전문 과정을 만드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풀무학교 전공부처럼, 여력이 되는 학교부터 특성을 살린 전공부를 만드는 것이다. 출판, 영상, 건축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부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서로 연계되면 네트워크형 대안대학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기존 대안학교와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노리단’ 같이 회사를 겸한 학교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자전거를 아이টে으로 한 자전거 학교는 사업을 겸하기가 아주 좋다. 구태의연한 학교 형태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NGO 활동가를 기르는 일도 대안교육 진영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활동가의 몇 년치 월급을 털어넣으면서 굳이 대학의 NGO 학과를 다녀야 할까.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NGO 전공부를 만들면, 시민단체들은 유능한 일꾼을 길러낼 수 있어 좋고, 대안교육 진영은 교육과 사회문제를 더 긴밀히 연계시킬 수 있게 된다. NGO 전공부 활동 무대를 국제적으로 넓힐 수도 있다.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공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실무 능력은 혼자 익히려면 몇 배로 힘이 든다. 인문학적 소양과 실무 능력을 함께 기르는 전공부는 일종의 네트워크형 평생학습센터 같은 곳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친구들과 고등부 과정 아이들이 함께할 수도 있고, 어른들도 같이할 수 있다.

대안학교의 경우 학제를 5-5-2제로 하여 최종 2년은 고등부로 하지 않고 바로 전공부로 해도 괜찮을 것이다.(사실 초중등 12년제는 좀 지루하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들이 좀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큰 그림을 함께 그려야 한다. 개별 현장 단위에서 전공부 개설이 부담스러우면 컨소시엄 형태로 독립된 전공부 과정을 만들 수도 있다. 따로 강좌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강좌를 네트워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제도나 돈이 아니라 상상력과 열정이다. 지금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고 세상에 늘려 있는 자원을 어떻게 끌어내고 연결할지 상상력을 펼치자. 틈새는 어디나 있기 마련이고, 없는 틈은 만들면 된다. 쉴 틈도 없이 빡빡한 사회이지만, 십대 시절에 일 년만이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틈을 마련해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 열 명 중 한 명만이라도 다른 길을 걸어볼 수 있게 숨통이 열리면 이 사회도 좀더 살 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발제] International People's College(IPC), 삶을 위한 배움과 스스로 시작하는 전환

쇠렌 라운비에르(Søren Launbjerg)⁴⁾

덴마크 세계시민대학 IPC(International People's College) 교장

International People's College (IPC), 국제 시민대학의 역사는 1차 세계대전 초기에 학교 설립자 페터 마니쉬(Peter Manniche)가 국제 협력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유럽은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유럽인의 시민 정신, 공동체 의식이 소멸된 상태에서 어떻게 서로간에 이런 끔직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모두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기술력과 이에 힘입은 산업은 번성하고 있었지만 인류는 이를 활용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철저히 실패한 셈이었다. 페터 마니쉬는 덴마크의 시민대학의 전통이 더 넓은 국제 무대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국제시민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다. 덴마크의 교육자, 철학자, 작곡가, 종교인, 문학가로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인 그룬트비 (N.F.S. Grundtvig)의 교육학적 비전을 바탕으로 설립된 포크하이स्कूल(Folk High School) - 시민대학은 1844년에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냈으나 당초 오직 덴마크 인민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단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페터 마니쉬의 국제시민대학을 향한 비전은 당시에 매우 획기적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IPC는 덴마크에 위치한 수십개의 시민대학중에서 유일한 국제시민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생들은 전세계 방방곳곳에서 모여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학교인 IPC는 한편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설립자의 비전이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다양한 문화간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결과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비전이다.

6개월을 머물고 평생학생이 되다

학생들은 한 학기 4~6개월을 IPC에서 머물지만 졸업을 해도, 평생학생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다. 재학중인 학생과 졸업생들 모두 미래의 학생들에게 길을 터주기도 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깨달음의 과정에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충족감을

4) 덴마크 교육자인 그룬트비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포크하이स्कूल(folk high school)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세계시민대학 IPC(International People's College)의 교장이자 예술가. 2003년 음악과 드라마를 가르치기 위해 처음 IPC에 왔으며 2009년 교장이 되어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전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포크하이स्कूल, 그리고 IPC의 정신을 사랑하는 천상 교육자로서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경이롭다고 말한다.

IPC는 포크하이स्कूल의 국제적 교육의 장으로 16세 이상 세계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학기는 봄학기(24주), 가을학기(18주), 그리고 계절학기(일주일)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학생들이 직접 다섯 개의 카테고리 영역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게 된다.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나아가 활동적인 시민으로,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

덴마크 전역의 주요 극장에서 공연하는 프로 싱어이자 배우이기도 한 쇠렌은 덴마크 어린이들에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지니 목소리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현재 부인과 막내아들과 함께 교내 캠퍼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느끼고 성장하고 발전하며 이에 동반하여 학교도 성장하고 발전한다. 학교의 성장은 바로 학생의 이러한 성공에 달려있다.

IPC의 요구 사항은 많지 않다. 학생들은 등록할 시점에 만17.5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학교의 핵심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린 사고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자격이 된다. 이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온 세상에 대한 꿈을 품고 떠나는 개별 학생들의 여정을 학교가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방법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혼자 혼란스러워하면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 여정에는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

학생들이 IPC에 도착하면 수없이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낯선 학교 환경부터 학생들에게 혼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든 집을 떠나 와있고 모르는 이와 방을 함께 사용해야 하고 아마도 모국어가 아닌, 영어라는 언어만을 사용해서 소통을 해야 한다.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더욱 어렵게만 느껴질 것이다. 능숙하지 않은 언어로 어떻게 자신의 감정, 걱정근심, 그리고 두려움을 표현할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의사소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한다: 자신의 몸, 미소, 다양한 표현력을 이용하는 것처럼,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문제를 도전으로 인식하며 하나의 학습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약점이라는 것들이, 그저 스스로가 나약하다고 판단하는 부정적인 관념 또는 다른 이가 갖는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시각일 뿐이라 것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IPC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는다.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생활 방식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친구들과의 우정이 돈독해지고 향수병이 찾아들면서 IPC를 점점 집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 학생들은 단지 용감하고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세계 마을 주민, 그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이 설계한 다소 비현실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현실이고 자신들이 연구하고 실패하고 또, 재시도해 보는 실험과 도전의 장이다. 그러면서 성공이나 실패라는 결과로 평가하고 평가받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고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가르침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신념은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신념에 근거한 우리의 학습방식이 시민대학을 위대한 학교로 만들어왔다. 학교들의 인기를 조사하는 최근의 한 연구보고서에서 덴마크의 각급 기관과 회사들이 뽑은 가장 긍정적인 평판을 지닌 학교들 중에 IPC가 3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시민대학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학교의 학생들은 각기 서로 다른 기대치를 지녔고, 다양한 인생경험을 갖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gap-year의 일환으로 (기존의 정규 교육상의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IPC에 입학했으며, 자신을 알아가면서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미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도 있다. 넉넉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학생도 있고 빈곤을 경험해 본 학생들도 있다. 차이는 엄청나게

크고, 도전이 될 만한 부분도,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항상 공존한다. IPC에서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우기보다는 배움의 전반적인 과정을 터득한다라는 학습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IPC의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과정의 끝없는 여정과 이에 따르는 무한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IPC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터득한 것을 늘 기록하고, 평가나 측정이 불가능하다더라도 학생은 항상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정면 돌파하는 능력은, 일생을 통해 배우고 깨달으면서 무르익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협력하는 능력, 자신의 이득을 넘어서서 당장에 스스로에게 득이 되지 않지만,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것, 이러한 기술은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자신과 스스로의 행동방식을 통찰할 수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Idea (아이디어), Place (공간), 그리고 Community(공동체) 즉 IPC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IPC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무한 선택지

IPC에서는 다양한 (한 학기에 30개이상 정도의)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교과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 학교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학습방식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겪게 될 수 많은 인생의 장벽과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다양한 기술, 지식 그리고 능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특정 과목을 들으라고 강권하진 않는다. 다만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라고 격려할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 꿈, 그리고 아직 몰랐던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시간표를 작성하곤 한다. IPC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열면 학교의 목적이 이미 일부 달성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게 되고 선물처럼 스스로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부분이 아마 IPC에 재학하고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성취가 아닐까 생각한다. 원하는 것도 얻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도 얻고 이것이 바로 일거양득이다. IPC는 무한하게 열린 선택지를 제공한다.

공간을 좁히다

삶에는 수많은 형태의 공간과 거리가 존재한다. 다른 이와 나 사이의 공간, 기대치와 두려움의 거리, 꿈과 실제능력 사이의 거리, 현재와 미래의 거리. 이 간격을 좁히고 채우는 과정을 삶에서 반복하게 된다. IPC는 학생들이 현재의 달콤한 순간들을 만끽하고 지금의 가능성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기대만을 위해 현재를 끊임없이 저당 잡히면서는 느낄 수 없을 기쁨, 희열 그리고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다. IPC에서의 여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스치게 되는 풍경처럼 정신 없이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수많은 깊은 인상이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천천히 전진하면서 깨닫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때로는 그저 머물거나, 천천히 진행하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을 지지한다. 천천히 전진하는 것은 단지 심심하거나 지루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깊은 이상들을 생각으로 아이디어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학생을 격려해주고, 힘과 능력을 갖추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답이 안 보일지라도, 때론 정답이 없을지라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만

이 실패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가르침을 전해 준다.

모든 이에게는 천천히 전진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린 끊임없이 서둘러 인생을 살아가고 더 전진할 수 있을 때에도 지레 지쳐서 절반밖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성향은 병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일종의 병의 증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도가 우리의 청춘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350년전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어린시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했다. 이 시절은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조심스레 다뤄야만 하는 기간이고, 건강한 ‘어린 시절’이 없으면 건강한 인격체 또한 만들어 질 수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한 기간이라고 상기시켜준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청춘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어린시절’과 ‘성년’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면서 청춘이라는 시기를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어린아이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실수를 저지를 때 쉽게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용서한 적이 있었는가? 청소년들에게 성인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면, 루소가 경고했던 바와 같이 한 청소년을 그리고 한 인격체를 잃게 될 수 있다. IPC의 경험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해법을 제공하는 좋은 시작점 이면서 평생학습의 여정에 있어 탁월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패널토의] 전환학년제, 그 의미를 살린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⁵⁾

정병오

(문래중학교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1) 전환학년제 고등학교 시범 실시

전환학년제 고등학교는 1학년은 전환학년으로 운영을 하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국 시도별로 한 두 학교를 지정할 수도 있고, 혹은 희망하는 교육청에 한하여 몇 학교를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원을 받되 주춤을 통해 입학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국가에서는 이러한 전환학년제 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뜻을 가진 교장과 교사의 자원을 받아 한 학년에 해당되는 교사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을 하면 된다. 전환학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그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가게 하면 될 것이다.

전환학년제 고등학교의 확대 여부는 시범 실시에 대한 만족도, 교육적 효과,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고 교육적 성과가 높아 이러한 학교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현재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고 한 학년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전환학년을 현재의 학제 틀 내에서 소화할 것인지 하는 논의를 자연스럽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환학년제 고등학교의 장점은 공교육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 내용 면에서 볼 때 고1에서의 진로탐색 과정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고2에서 4학년까지 공부하고 진학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고2에서 4학년까지 이어지는 일반 교육과정 내에서도 고1의 진로탐색 과정의 결과들을 담아내는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교육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육본질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한 학년을 쉬어가면서도 친구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물론 전환학년제 중학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3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후 희망자들만 남아서 중4 전환학년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된다. 이 경우는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친구들과 함께 전환학년을 한다는 면에서 안정성은 있지만, 일반 친구들에 비해 고등학교 진학이 한 학년 늦어진다는 면에서 약간의 부담을 져야 한다.

5) 이 글은 정책토론회 자료집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2013)에 실린 필자의 발표문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일부분(pp.24-27)를 필자의 동의를 얻어 옮겨 실은 것이다

2)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 시범 실시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는 중3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 진로 탐색을 하도록 도와주는 1년 과정의 대안학교를 말한다. 여기서 공립형이라는 것은 국가가 재정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는 의미지 국가나 교육청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되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질은 심사와 감독을 받고 운영하는 형태로 가야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헌신된 교사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의 장점은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동시에 공교육의 틀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교육본질에 맞는 자유로운 교육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육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다양한 실험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 혹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만 별도로 선발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미술, 체육은 물론이고 영화학교, 창업학교, 방송학교, 자연학교, 아토피 치유학교, 봉사학교, 여행학교 등 다양한 틀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주체도 우리 사회의 각종 직능별 단체들, 종교단체, 사회 단체들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진 자산을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는 '과건 학년제' 형태로 시행해 볼 수도 있다. 즉, 중3 졸업 후의 시기가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 중 언제라도 공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로운 진로 탐색을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건 학년제' 형태로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에서 일정 기간 공부를 한 후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이 이전까지 공부를 했던 이전 학년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상급 학년으로 진학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인의 희망과 진로 탐색 대안학교 담당교사의 의견, 해당 학년 학업에 대한 검증 시험을 거쳐 결정할 수 있게 하면 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즉,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진학 학생 가운데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되, 학적은 원래 재학중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두고 졸업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원용하면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도 중3과 고1 시기에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외에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 과건 학년제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진로 탐색 휴학제 실시

진로탐색 휴학제는 중고등학교 과정 중 언제든지 진로 탐색을 위해 휴학을 허용하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휴학 후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한 지원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주기적으로(예를 들어 1주일에 하루 정도) 교육청에 있는 가칭 '진로 탐색 휴학 학생 지원 센터'(이후 진로 지원센터)에서 진로지도 교사에게 현재 하고 있

는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지도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이 휴학 기간이 끝나면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진로 탐색 휴학제는 악용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많은 제도다. 자칫 상류층을 중심으로 휴학 후 고급 어학 연수 붐이 불 수도 있고, 또 휴학 후 주요 교과에 대한 사교육에 매달릴 경우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반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휴학 후 게임에만 몰입하는 등 나쁜 영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휴학 기준을 잘 세우고, 휴학 신청서에 대한 엄밀한 심사와 더불어 '진로 지원 센터'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적은 수의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 취지에 맞는 사례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초기 정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진로 탐색 휴학제의 경우에도 1년간의 휴학 기간을 마친 후 이전까지 공부를 했던 이전 학년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상급 학년으로 진학할 것인지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경우도 과견학년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과 '진로 지원 센터' 진로지도 교사의 의견, 해당 학년 학업에 대한 검증 시험을 거쳐 결정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참고자료] 10-15-20 특별학년제를 제안한다⁶⁾

조한혜정

(하자센터 센터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999년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개혁을 감행했다.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고 학생들은 입시 훈련장에서 풀려나는 듯했다. 그런데 이 조치는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했다. 그 재수 좋은 세대가 응시한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어느 때보다 어려웠고, 자녀를 사교육 시장에 맡긴 학부모들만 쾌재를 불렀다. 이 획기적 개혁은 결국 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위임하고 ‘부모’를 ‘학부모’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한 공익광고가 말하듯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하는 존재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점점 막강해지는 입시공화국은 잣난쟁이 부모까지 투자하는 학부모로 만들어버렸다.

대통령 후보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기회 균등, 사교육 폐지” 수준의 논의들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부모들이 부모가 되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어떤 교육개혁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부모들을 학교에 참여시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이까지 학부모가 장악해 버리면서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무기력하다. 그러나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을 교육공간화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사실상 이해찬 장관의 시도가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당시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히 없었다는 점이다.

후기 근대 저성장, 위험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입시에 성공하는 능력이 아닌, 스스로 사회를 탐구하며 자활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존재이다. 이런 차원에서 삶에 밀착된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 아일랜드는 15살이 되는 고등학교 1학년을 ‘특별학년’으로 정해 1년 동안 학교를 안 가는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했다.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해보며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게 하려는 정책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는 거셌지만 국가는 강하게 밀고 나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제도를 아일랜드 전역에서 시행하는 데는 30년이 걸렸다.

나는 교육개혁에 관해 별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10-15-20 특별학년제를 제안한다. 아일랜드의 15살 특별학년제와 함께 10살 유학제, 20살 공익제도가 그것이다. 이를 시행한다면 학교는 열릴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부모가 될 기회를 얻을 것이다. 10살 유학제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촌유학에서 모델을 찾을 수 있다. 5학년 때 집을 떠나 농촌 마을학교에서 또래들과 1년간 지내며 자립과 상호 돌봄의 감각을 키워 가게 된다. 농촌의 아이들은 역으로 도시에서 1년을 보내면 될 것이다. 20살 공익제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청년들이 자기 동네와 나라, 세계를 구하는 1년을 보내는 제도다. 향

6) 이 글은 「한겨레신문」 2012년 10월 16일자에 실린 “[조한혜정 칼럼] 10-15-20 특별학년제를 제안한다” 전문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옮겨 실은 것이다.

사 문제를 아시아 청년들이 함께 모여 풀어간다면 어떨까? 20살 청년들이 자신의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나가는 데 공헌할 수 있다면 그들은 부쩍 성장할 것이다. 점점 어려워지다 못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수준 행태를 보이는 ‘초합리적 바보’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갈수록 획기적인 교육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한다. 입시 중심 학교에서 길러질 관성을 끊어내는 연습, 공부와 세상을 잇는 연습이 필요하다.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할 수 있게 노동시간을 줄이고 ‘성과 없는 성과주의’ 사회를 바꾸는 것, 학교를 인간적 규모인 120명 이내로 줄이는 것, 부모들이 마을에 다양한 학습공간을 만드는 것, 이런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부모들이 만든 작은 마을도서관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가 다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한 우정과 환대의 장소로 되살아나기 위해 ‘학부모’는 가고 ‘부모’들이 와야 한다. 이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한국 사회는 조만간 구인난이 아닌 심각한 인재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2012년 정책토론회는 적어도 이런 수준의 언어로 상상과 실천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